



행복한 교육 2023년 1월 특별기획 -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책임 강화

2023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응모자격

- 매월 2건 이상의 교육현장 소식을 취재·작성할 수 있는 성실한 분 (홍보성 기사 제외)
- 만18세 이상의 교원, 학부모, 교육관계자, 대학(원)생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교육가족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분
- ※ 기존 명예기자는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평가에 반영함

지원내용

-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표창
- 종이책 <행복한 교육> 1년간 제공,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취재계획 후 완성한 기사는 웹진(명예기자 리포트) 코너에 게재

모집인원

00명

모집기간

2023년 1월 2일(월) ~ 1월 31(화)

원서접수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응모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송부(eduzine21@gmail.com)
- ※ 명예기자 지원서, 취재계획서 각 1부(단, 기존 명예기자는 소정 양식의 경력지원서 1부만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명예기자 이름' 기재 필수

결과발표

2023년 2월 중순(웹진 공고/ 합격자 개별 문자 연락)

문의

<편집실> 02-2271-0992

02 네 꿈을 펼쳐라

무학중학교 자전거동아리 '페달링' "새해에도 신나게 달려보자"

10 에듀피플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교육감) 시도 공동 의제 발굴, 함께 소통하며 협업할 것

36 정책을 말하다 ①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 교육부 전면 조직개편

44 교육웹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누리는 초등 늘봄학교



행복한 교육

01

vol.486 2023 JANUARY

COVER STORY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자전거 기본 정비부터 라이딩까지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경산 무학중학교 자전거동아리 학생들. 지난해에는 경북교육청에서 학교까지 198km에 이르는 장거리 라이딩을 완주하기도 했다. 사진은 겨울바람에 두 볼이 빨개진 채로 학생들이 신나게 금호강 자전거길을 내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애들아, 새해에도 신나게 달려보자~"

발행일 2023년 1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광보미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이경화, 정성경, 김수연, 정미화
 사 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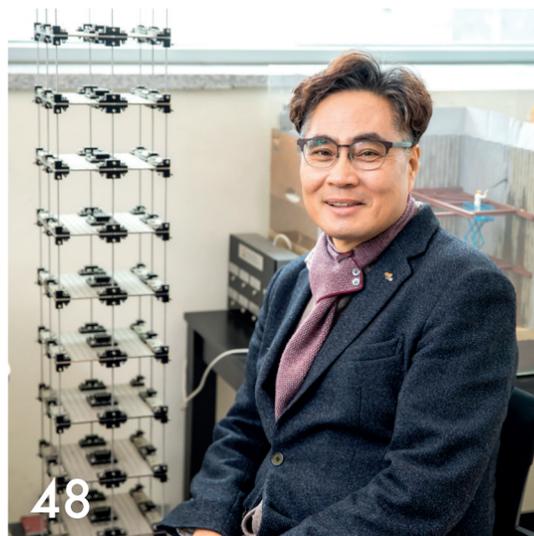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6



10



48

특별기획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책임 강화

17

특수교육대상자 1.7%의 비밀

22

특수·일반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26

"저는 대한민국 순회교사입니다"

30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02 네 꿈을 펼쳐라

무학중학교 자전거동아리 '페달링'
"새해에도 신나게 달려보자"

06 꿈이 영그는 현장

부산 동수영중학교
교실에서 미래를 만나다

10 에듀피플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교육감)
시도 공통 의제 발굴, 함께 소통하며 협업할 것

14 명예기자 리포트

나비효과와 힘! 순창제일고 환경 특색프로그램 '불모지당'

34 정책을 말하다 ①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 교육부 전면 조직개편

38 정책을 말하다 ②

2023 교육부 예산, 역대 최대규모
전년 대비 12조 3,728억 증액된 101조 9,979억 원

44 교육웹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누리는 초등 늘봄학교

46 이달의 교육뉴스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외

48 진로직업인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복합재난 융합 연구로 '스마트'한 창의적 해결 찾는다

52 체험! 진로현장

'오감'으로 안전을 배워요

54 일상의 심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알려주는 비밀
경남 고성 상족암군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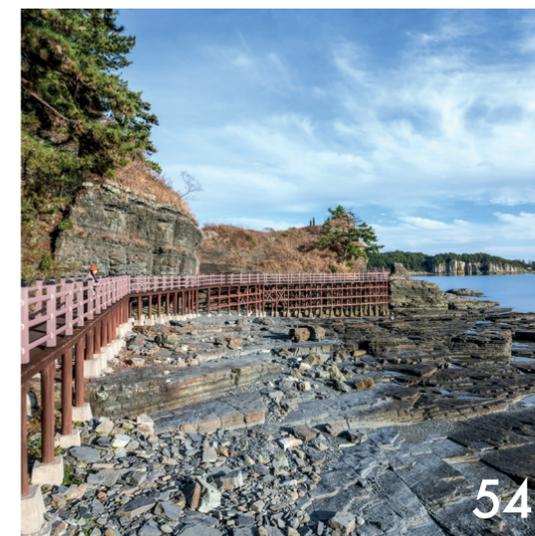
58 교실혁명

온라인 국제교류로 너의 날개를 펼쳐봐!

62 혼자보기 아까워서

애들아, 고맙다 외

64 독자마당



54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무학중학교 자전거동아리 '페달링'

“새해에도 신나게 달려보자”



두 발을 페달에서 내리는 순간 자전거는 멈춘다. 자전거의 동력은 페달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인 셈이다. 겨울바람에 두 볼이 빨개진 채로 금호강 자전거길을 내달리는 경산 무학중학교 (교장 변경석) 자전거동아리 '페달링' 학생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지 겨우 1년 남짓인 학생들은 지난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무학중학교까지 198km에 이르는 장거리 라이딩을 완주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동아리 활동을 일깨우는 신호탄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페달링을 만나보았다.

글·사진_ 편집실



1 무학중학교 자전거라이딩 동아리 '페달링' 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 세 번째 자전거 라이딩 중 대구 강정보 강문화관 디아크 광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3 첫 번째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 제공_ 무학중학교)

함께 달리며 응원하는 '페달링'

“첫 번째 라이딩을 하고 나서 허벅지랑 엉덩이가 아파서 그다음 날 계속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어요. 형들과 선생님의 응원이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승훈(1학년) 학생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무학중까지 따뜻한 동행 198km' 프로젝트의 첫날인 지난 6월 18일 라이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을 출발해 상주 자전거박물관까지 약 54km를 처음으로 달렸던 날이다. 이후 9월 3일에 상주보에서부터 칠곡보까지 약 72km를 달리고 10월 29일에 칠곡보에서 학교까지 약 90km를 달려 198km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05년부터 이어온 교사 자전거 소모임의 주축이기도 한 변경석 교장은 사전에 라이딩하며 코스 의 안전성과 식사 장소 및 휴식 장소 등을 미리 점검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박재민, 오유라, 석아름, 이정원 교사 등이 부원들과 함께 라이딩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보탤다. 또 따뜻한 동행 자전거 수첩을 만들어 부원들이 구간별 완주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해 재미와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학교 구성원 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목표를 110% 달성했다. 함께할 또 다른 도전을 바라는 페달링 부원들은 한목소리로 “선생님, 부산까지 고고~”를 외쳤다.

이종윤 담당 교사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 20km 이후부터 어깨와 엉덩이에 통증이 오고 30km쯤 되면 허벅지가 터질 듯해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그 순간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혼자라면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몇몇이 가면 힘들어도 이겨내야 한다. 자전거 라이딩의 매력은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모임 '페달'에서 동아리로 분화 확대

무학중학교는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자전거길과 경산시 조산천 자전거길 등과 맞닿아 있어서 자전거 통학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전거 관리를 위해 교내 등록제를 실시하는데 전교생의 25%에 해당하는 약 150여 대의 자전거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자전거 관련 동아리도 현재 '페달링'과 '페달'을 운영 중이다. 이 교사는 “자전거 통학 중 자전거 고장이라든지 조작 미숙으로 인해 학생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럴 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며 교내 자전거동아리 '페달'의 시작에 대해 말했다.

지난 2015년 교내 소모임으로 출발한 페달은 2016년부터 정식 자전거동아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자전거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마음을 모았다. 동아리에서는 2017년부터 자전거에 대한 기본 정비와 안전한 라이딩을 가르쳐 왔다. 조세림(2학년) 학생은 “1학년 때 처음 정비를 배울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타이어 튜브도 교체할 줄 안다. 장거리를 달릴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

2019년까지 자전거 실습 교육과 라이딩을 병행해 오던 페달은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지금은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해 1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비 중심의 동아리 '페달'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라이딩 동아리 '페달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중윤 교사는 “쉬는 시간마다 자전거 보관소에서 먼지를 닦고 관리하는 학생을 보면서 자신의 자전거에 열정을 쏟듯 언젠가 자기 삶도 보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②



4 이중윤 교사로부터 자전거디스크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페달링 부원들
5 자전거 부품 교환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교 뒷마당은 동아리 '페달'의 활동 장소다.



Mini Talk



조성진(2학년) 학생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MTB(산악자전거) 다운힐 선수가 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다. 높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 스릴은 엄청나다. 요즘에는 안전 장비를 갖추고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면서 자전거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재밌다. 선수가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신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앞으로도 부원들과 건강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

노광민(1학년) 학생

자전거를 최근에 배웠다.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아빠와 함께 연습하면서 장거리 라이딩에도 용기를 내보았다. 세 번째 라이딩이 가장 힘들었지만 완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옆에서 채찍질해준 친구들의 도움이 컸다. 다음에 또다시 멀리 가자고 해도 할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스스로 체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입학할 후배들에게도 꼭 함께하자고 말하고 싶다. 페달링은 낯선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귄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신금재(1학년) 학생

원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즐긴다. 아빠와 함께 왕복 100km를 탄 적도 있다. 칠곡보에서 출발해 학교까지 오던 날 90km 정도 탔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느껴지는 속도감이 좋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내 페이스보다 동아리 전체 속도에 맞추는 게 힘들 때가 있다.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자전거를 잘 타는 후배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앞으로 선생님들과 부산에 가기로 한 계획도 꼭 이뤄지면 좋겠다.

안준우(1학년) 학생

6학년 때 이사를 오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다. 아직 초보라서 아빠가 따뜻한 동행 라이딩을 반대했었다. 그런데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선생님들이 충분히 쉬게 해주시고 간식도 많이 주셔서 괜찮았다. 동아리 부원들과 대열을 맞춰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선수가 된 느낌이 들어서 어깨가 으쓱했다. 내년에는 앞에서 인솔하시는 교장 선생님께 힘들다는 말 하지 않고 열심히 타서 부산까지 다녀왔으면 좋겠다. 암살 피우지 않는 페달링이 되자!



이승훈(1학년) 학생

'페달' 활동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떨어졌다. 그래도 명한이 덕분에 페달링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가장 장거리였던 3차 라이딩이 힘들었지만, 옆에서 형들과 친구들, 선생님이 응원해 주어서 해낼 수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 10km 구간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자전거길 옆으로 펼쳐진 하천과 산, 구름이 어우러진 풍경은 힘든 라이딩 중에서도 잊을 수 없다.

지명환(1학년) 학생

페달과 페달링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탈 때만큼은 계획적이고 준비성도 철저하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잘 닦아주고 체인도 분리해서 세척해 준다. 자전거는 잘 관리해 주면 그만큼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전거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타니까 더 즐겁다. 그래서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권한다. 최종 목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박으로 자전거를 타는 거다.



부산 동수영중학교

교실에서 미래를 만나다

동수영중학교는 전 교과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교과별 챗봇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SW교육, 메이커교육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며,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던 학교다. 부산시교육청 첨단미래 선도시범학교로 지정돼 현재는 미래교실(러닝센터)과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교실을 선도하고 있다.

글 사진_ 편집실



방향성을 없앤 교실, 가상공간까지 확장

“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검색해보세요.”

미술수업에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꺼냈다. 교실에 크리스마스캐럴이 BGM으로 깔리고,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그림을 검색해 펜드로잉으로 크리스마스카드를 꾸미기 시작했다. 작업이 끝난 친구들의 작품은 교실의 스마트모니터뿐만 아니라 SNS나 메타버스에 업로드해 전시도 할 수 있다. 교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까지 이어진다. 동수영중학교의 융합형 미술실의 수업 풍경이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련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수영중학교는 광안리 해수욕장의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등굣길이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학생들은 ‘경치가 좋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2019년부터 첨단미래 선도시범학교로 운영되면서 교실 안 경치도 사뭇 달라졌다.

제일 먼저, 책들만 빼곡하던 도서관은 첨단 장비들로 세미나도 가능한 러닝센터가 되었다. 음악실은 예술감각터가 되어 자유롭게 앉거나 누워서도 음악을 감상하고 대형스크린을 통해 생생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교실마다 정면만 바라보던 책상이 이제는 사방을 향한다. 어디를 봐도 교사가 있고 친구가 있다. 교실마다 전자칠판과 빔프로젝트가 있고, 학생들의 책상마다 노트북이 놓여있다. 2022년부터는 1학년 교실마다 아이패드도 있다.

“첨단미래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시설개선과 수업개선을 같이 하게 됐을 때,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모인 게 교사 중심의 권위적인 교실을 바꾸자는 거였어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수업이 되려면 학생들에게 공간 자체가 편해야 하기 때문에 정면만 바라보던 것을, 어느 곳을 바라봐도 교사가 보이고 수업이 가능하게 한 거죠.”

현재 동수영중학교의 블렌디드 러닝 연구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류승우 교사(국어 담당)의 말이다. 이렇게 개선된 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3학년 2반 여수련 학생은 “학생들마다 노트북이 있어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수업이 재밌다”, 3학년 6반 김동희 학생은 “수업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어 과목의 한계가 없어 좋다. 지금 교실은 친구들과 협업하기 좋은 구조”라고 평했다. 3학년 4반 손다인 학생은 “음악 시간이 즐겁다. 친구들과 소통이 더 잘 된다”, 3학년 5반 주현욱 학생은 “정면을 보는 교실은 선생님과 거리가 먼데 지금 교실은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서 좋다.”라고도 했다.

교무실은 ‘교무업무지원센터’로 재구조화했다. 교사가 즐거워야 학생도 즐겁다는 윤규식 교장의 철학이 발현된 것이다.

교사들의 헌신, 미래형 교실의 거름이 되어

“미래학교를 꿈꾼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난 4년간 첨단미래교실을 비롯해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시설개선은

- 1 3학년 1반 하유빈 학생이 미술시간에 그린 자화상을 SNS에 업로드해 전시한 것을 친구들과 들여보이고 있다.
- 2 미술수업에서 전자칠판으로 세계적인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사례를 보고, SNS나 메타버스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함께 감상할 수 있다.





3 아이패드를 이용해 미술수업을 하는 학생들

4 노트북으로 단원평가를 진행하는 학생들

물론, 전체 교실을 미래형 교실로 변화시키는 데 학교 구성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죠. 수업 혁신을 위해 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STEAM 융합수업을 비롯한 인공지능 융합수업, 메타버스 활용 수업, 빅데이터 활용 수업 등 미래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사 연수 및 연구 활동이 많이 요구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교사의 업무가 포화상태로 어려움이 컸음에도 학생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교사의 책무와 새로운 수업을 설계하는 즐거움으로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연구 활동에 참여해주셨어요. 그 결과가 교사는 수업 전문성의 신장으로, 학생은 미래역량의 성장으로, 학부모님은 학교에 대한 만족감 증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모니터로 트래픽(Traffic)을 체크한다는 윤 교장의 말이다. 아무래도 교실마다 디바이스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버가 잘 운영되는지 매번 점검한다.

동수영중학교는 2019년 첨단미래 선도시범학교 개소식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블렌디드러닝 연구학교 수업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STEAM 융합 수업을 부산형 블렌디드러닝의 수업 모형과 결합한 교과융합수업에서 메타버스(게더타운)를 활용한 2개 학급 연계 수업을 보여줬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과융합수업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의 설계를 위해 국어의 언어적 자료와 미술의 시각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토의 토론을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블렌디드러닝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사의 자발적 연구모임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하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블렌디드러닝이란 온·오프라인 학습을 혼합하거나, 다양한 수업 방법을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칠판과 스마트 기기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도 하고, 학생이 디지털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주도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즉, 교육과 기술이 더해진 학생 참여 수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블렌디드러닝’으로 ‘학생들을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모든 학교에 추진 중이다. “처음엔 막막했었죠. 수업개선을 위해 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방학을 거의 반납하면서 연수하고 연구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배려해주셔서 연구회도 만들고 월요일에는 방과 후 활동 없이 연구만 하는 월요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왜 했는지 알겠다는 반응이 나왔죠. 수고로웠지만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팬데믹에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고, 부산시 학교들에 모델을 제시하고 연수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교사들의 헌신이

켰어요. 학생들은 우리보다 잘했어요. 뭔지 모를 뿐이지 교사들보다 성과는 훨씬 좋아요.(웃음)” 류승우 교사가 말했다.

미래교실은 ‘학생들이 콘텐츠가 되는 곳’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의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기에 교실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역량을 키워나갈 요람이어야 합니다. 미래교실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주체성을 갖고 각자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갖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미래교실입니다. 첨단시설과 기자재는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렇기에 결국 미래교실을 채우는 것은 콘텐츠죠. 그리고 콘텐츠를 담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저는 첨단미래 선도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추구해왔어요. 행복한 교사가 학생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교실을 채울 콘텐츠는 바로 그런 교사의 연구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래학교는 행복한 교사가 연구하는 학교, 주체적 학생이 꿈을 키워가는 학교가 되리라 생각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동수영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공감터. 자유롭게 앉거나 무리지어 음악수업을 하거나 화려한 조명 아래 공연을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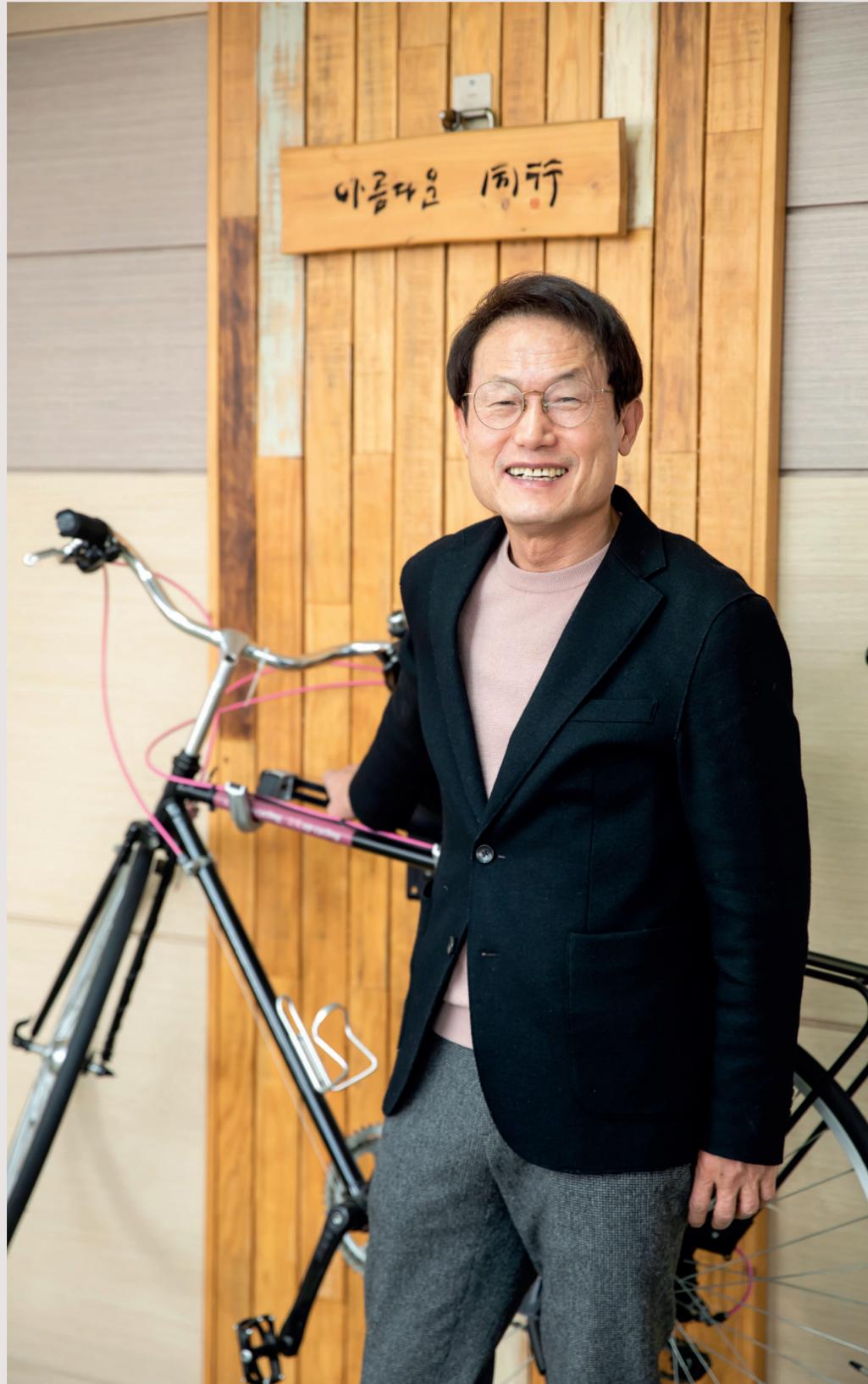


윤 교장은 미래교실의 교사를 ‘콘텐츠를 담는 사람’이라고 했다. 류 교사는 현재 진행되는 ‘디바이스 수업은 학생 중심 수업’이라며 ‘학생이 곧 콘텐츠’라고 정리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모든 학교가 가야되는 방향’이라고도 말했다. “미래학교가 필요하나,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밖에서도 지식을 접할 수 있고, 정보나 학습자원을 제공해주는 곳이 많아서요.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변해가는 학교는 지속될 뿐 아니라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믿어요. 기존의 지식을 융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요. 공간적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공간의 혁신도 이뤄지고, 새로운 교육의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학교는 변화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더 영향력이 커지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류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힘들지만 충분히 즐거운 길”이라며 “함께 가보자.”라고 말했다. 미래교실을 만들어 나가는 윤 교장이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SNS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팔로우합니다. 그렇게 여러 콘텐츠를 팔로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보는 세상이 모두 비슷한 콘텐츠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른 것은 없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학교를 봐주세요. 학생 여러분이 학교를 잘 이용하면 현재의 교실이 바로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미래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학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교육감)

시도 공통 의제 발굴, 함께 소통하며 협업할 것

글_이순이 본지 편집장



“ 교육 문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교육감협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학교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가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며 정부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청의 역할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교육청 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시도 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이 무척 중요해졌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만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교육감님들의 철학이나 지역의 특색, 교육주체들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선의의 경쟁과 협업, 소통을 통해 교육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기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학력 문제와 같은 시도 공통의 문제들을 17개 시도가 따로 비용을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교육 문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교육감협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 문제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정된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교육 투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보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에 각자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존중하면서도 충돌하는 것은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과정이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매우 밀접한 문제로 교육감협의회는 교육 관련 단체와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시행된다. 조 교육감은 “2025년 본격 시행 전에,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과정·진로·진학 전문성을 갖춘 일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학교 수요를 반영한 학점제형 교육 공간 인프라 구축 등 여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기능을 강화한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추진계획의 우선순위에 교원 업무경감 계획이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교육청 중심의 별도 전담 기관을 둔다고 해도

방과 후와 돌봄 장소가 학교인 경우, 행정 및 업무 협조, 민원의 한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과 돌봄 문제는 학교에서 방과 후와 돌봄시간을 연장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문화와 기업적 태도,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작은학교만의 장점 살려라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지역에서도 작은학교가 여럿 운영되고 있고 통폐합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열악한 편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며칠 전 노원구에 소재한 중현초에서 ‘소규모학교 지원’을 주제로 학부모 간담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누구나 가고 싶은 작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도별로 다양한 요인이 있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서울의 경우, 2021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 감소한 데 비해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 수는 19% 증가했습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입하는 국가, 즉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이 충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배경을 가진 이방인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세계시민형 민

“

지역에 따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안정적인 교원수급 정책 방향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제안서를 교육부와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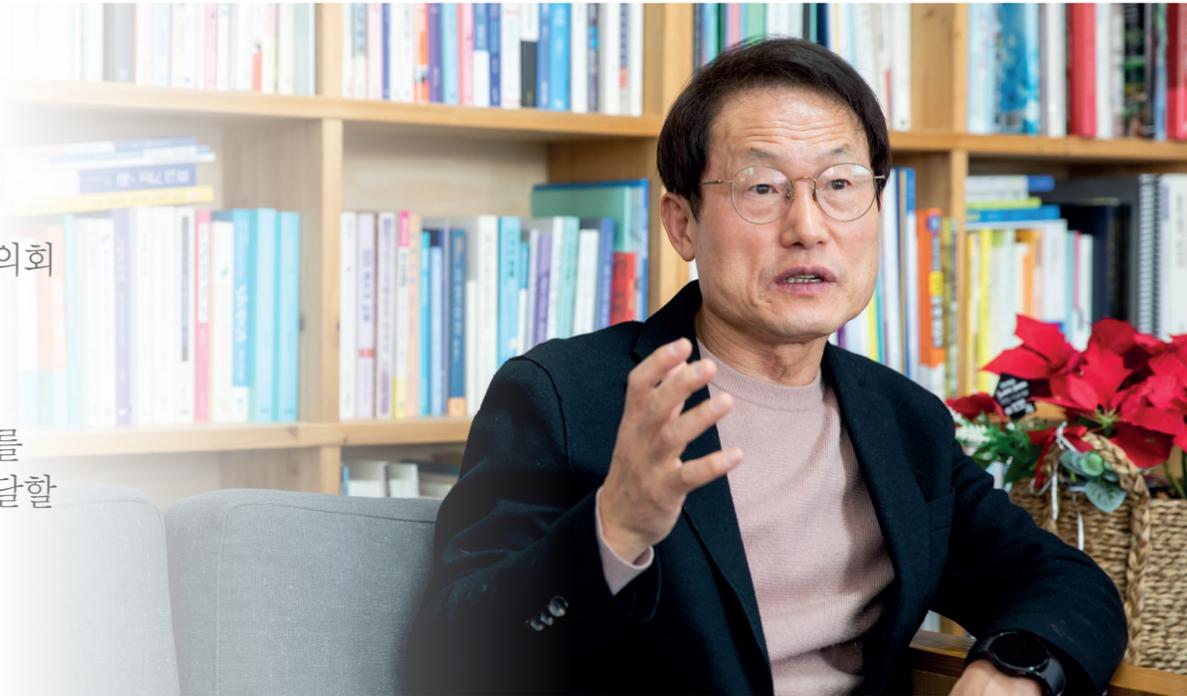
”

주시민교육’으로 바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수급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 수를 기초로 하는 교원수급 정책은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즉 △인구소멸 지역에서 소규모학교 유지 △대도시의 과밀·과대학급 해소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강화 △기초학력보장 지원 △고교학점제 준비 △디지털교육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등 지역별 특성과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교원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세대 생겨, 무한한 책임감 느낀다

짧지 않은 기간, 서울교육을 책임져온 조 교육감은 지난 1·2기 임기 동안 학교통합지원센터 설립, 협력종합예술활동, 특수학교 설립 등의 성과를 이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학교폭력 관리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이를 법제화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건인 차 구실을 하였다. 지금은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부터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17년 만에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했으며, 동시에 앞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서울 중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최소 한 학기는 교육과정 안에서 뮤지컬, 연극, 영화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 예술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해오고 있다.

3선 교육감으로서 조 교육감은 “저와 같은 시기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고3까지 보내는 조희연 세대가 생기는 것이고, 한 아이의 인생에 거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다.”라며 “이 아이들은 22세기를 살아갈 세대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존엄(시민성), 포용(다양성), 공존(지속가능성)을 서울교육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학생들을 포용과 공존의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역량을 갖춰야 하며 고민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사들의 연수를 지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2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는 서울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조 교육감은 “국토인생 교육감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국토인생이란 아이들의 세계시민적 감수성을 키우는 **국**제공동수업, 차이를 알고 차이를 넘어서 공존과 접점을 찾는 **토**론수업, **인**공지능,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의미한다.

미래 이끌어갈 학생 기르는 데 온 힘 다할 것

조희연 교육감은 “2023년 역점 사업으로 현재 지역에 따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안정적인 교원수급 정책 방향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제안서를 교육부와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라며 “그리고 지난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하고 국교위에 설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국민에게 알릴 것은 소상히 알리고 뜻을 경청하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을 기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FOCUS 나비효과의 힘! 순창제일고 환경 특색프로그램 ‘불모지당’

-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만들어 가는 교사 연합의 힘

“불모지당”은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당신이란 뜻

글_곽우은 명예기자



교사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환경에 대한 열정의 불씨가 전체 교사들, 학생들로 퍼졌고 학교 안에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하고 열정적인 환경 활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교육현장에 녹아들었다.

교사들 간에는 연대와 협력이, 학생들 간에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이 넘쳐나고 있다. 순창제일고 임이랑 교사는 “수업시간이 나 동아리 시간에만 진행한 환경 활동을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기 위해 동료 선생님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메모했다. 아이디어는 혼자서 구상할 때보다 동료 선생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번뜩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며 “선생님들 간의 산책이나 정기적인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환경을 주제로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니 다양한 주제별 융합수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체육선생님과 걷기(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 동작과 칼로리와의 관계에 대해, 미술선생님과 정크아트 설치예술에 대해, 음악선생님과 환경송 대회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환경 관련 도서를 국어와 영어수업 시간에 읽고 영어 연극을 하기도 하였으며, 환경 주간에 학생들에게 미국의 일론머스크, 스웨덴의 튜베리, 중국의 시진핑, 인도네시아의 자라 노동자, 몰디브의 어부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여 순창제일고 기후변화협정을 진행하였다. 나라별, 직업별, 소득별 입장 차이를 통해 왜 2015 파리기후 협정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지와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2022년에는 순창제일고 기후변화 협정문을 만들어 학교 본관 현황판 옆에 걸어놓으면서 기후 위기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생들은 채식위주의 식단인 비건메뉴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최강비주얼과 맛을 가미한 환경 비건메뉴를 만들었다. 맑은 콩나물국, 두부의 물기를 빼서 으갠 것에 각종 채소를 넣은 떡갈비와 배추전 등 이가 없는 어르신이나 채소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을 배려한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해 입맛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지방을 뺀 고단백 음식으로 영양소를 챙기는 메뉴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았으며 영양선생님께 식판과 밥을 받아 학생들은 밥이 아닌 나머지 공간을 자유롭게 채우는 미션을 수행하였다. 제한 시간 2시간 30분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의 메뉴를 식판에 담아 메뉴 이름과 콘셉트, 지향하는 점을 발표하였다.

또한,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하여 ‘쓰레기로 과학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 달간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이 열심히 모은 쓰레기를 가지고 학교에 상주하는 개를 위한 쾌적한 개집과 산책길에 우리의 소비패턴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플라스틱’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국민 생각함’이나 불펜 리필심 사용 확대와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 제안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불펜을 다 사용했을 경우 속에 리필심만 바꾸면 사용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경우인데도 쉽게 버리고 새로 구매하여 불필요한 쓰레기를 많이 만든다는 데 착안하여 1학년 학생들은 국민 생각함에 불펜 리필심 사용을 늘리자는 호소문을 올리고 지역 문구점에서 리필심이 너무 안 보이는 구석자리에 위치한 것을 찾아 사장님께 취지를 설명하고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될 수 있도록 배치를 바꾸었다. 나아가 직접 리필심을 교체하는 방법을 시연하며

학교에 리필심 교체 문화를 퍼뜨리기도 하였다. 가장 특색프로그램을 꼽으라면 한다면 바로 환경송 뮤직비디오이다.

2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환경송 뮤직비디오인 ‘나비효과’를 학생, 선생님, 행정실 직원들까지 모두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학생들이 직접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입히고 중간 간주가 허전하다며 랩까지 불러 만든 곡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환경보드게임, 텃밭가꾸기, 굿네이버스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체 학생들은 환경 관련 융합수업과 다양한 환경 특색활동을 통해 환경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조하연(2학년) 학생은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가면서 그전에는 지구가 아프다고만 인식했는데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아픈지,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정산희(2학년) 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라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지금 열심히 실천 중이며, 과대포장을 줄이려 오피라인 매장을 더 많이 이용한다. 앞으로 수세미나 고체비누 같은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임 교사는 교사들 간의 연대와 협력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불려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인재로 자라나게 한다면 그런 인재를 키우는 위대한 직업이 교사라고 했다. 그리고 그 힘은 함께하는 연대의 힘이라고 했다. 2

1 기후협약 사진
2 생각하는 플라스틱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책임 강화

교육부는 지난 11월 28일,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3~27)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1.7%에 머무는 현실과 조기개입,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현장과 경남 진주해광학교 박은지 특수교사의 순회교사로서의 고민을 들어본다.

- 17 특수교육대상자 1.7%의 비밀
- 22 특수·일반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 26 “저는 대한민국 순회교사입니다”
- 30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특수교육대상자 1.7%의 비밀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왜 낮은가?

인간의 특성 중 상당수는 정규분포를 보인다. 통계학에서는 그 분포에서 양극단(대개 위아래 5%)에 해당하면 ‘이례적’ 혹은 ‘비정상’이라 칭한다. 특수교육 또한 이 관례에 따라 학생의 특성이 이 범위, 특히 하위 5% 안에 들어오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해왔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5~10% 정도이다.

2022년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10만 3,695명이다. 이는 2021년도 하반기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약 594만 명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 중 72.8%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16.9%는 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장애영역별 변화 추이를 보면, 대체로 시각, 청각, 지체, 정서·행동, 학습장애 등은 지속적으로 그 숫자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폐성장애, 발달지체는 지속적으로 그 숫자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을까? 이 통계는 어떤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 아니, 논란이 필요한가? 더 나아가 이 통계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실과 관련하여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특수교육대상자 미국 8.4% vs 한국 1.7%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점은 혹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적게 파악되고 있

을 가능성이다. 단적으로, 비록 통계상으로는 전체 학생의 약 1.7%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집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실상은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그 유형으로 판별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나라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통상 5~10% 정도이다.

교육플러스 보도¹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는 초·중학생 비율은 8.8%였다. 이는 10년 전의 6.5%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2021년도 기준 6~21세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약 8.4%였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1.7%는 지나치게 낮다. 유전학적으로 우리 민족의 장애인 출현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규모는 현재보다 최소 2~3배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만약 학습장애 학생 수가 제대로 파악된다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다음 장 [그림1]에서 보듯, 지난 약 20여 년간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학령기 인구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학습장애 학생 수는 매우 가파르게 감소해왔다.

¹ 2022년 12월 13일자 교육플러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6>)

특별기획 1_ 특수교육대상자 1.7%의 비밀

자폐성장이나 발달지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유형별 비율이나 규모가 감소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나라 학습장애 학생 감소세는 너무 가파르다.

통상 학습장애는 경도장애로 분류하고, 숫자로는 경도장애가 중도나 중복장애보다 많다. [그림2]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습장애 학생집단은 그 규모가 가장 적지만, 미국의 경우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습장애 집단 규모가 가장 커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 비교해보면 우리와 34배 차이가 나고 전체 학생 중 비율 차이는 약 189배에 달한다. 물론 두 나라 간 학습장애 진단과 판별 기준이나 관련 인식, 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학습장애 학생 규모는 다른 나라와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면, 이는 상당부분 우리나라에서 학습장애로 판별되는 학생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목표 수준의 20%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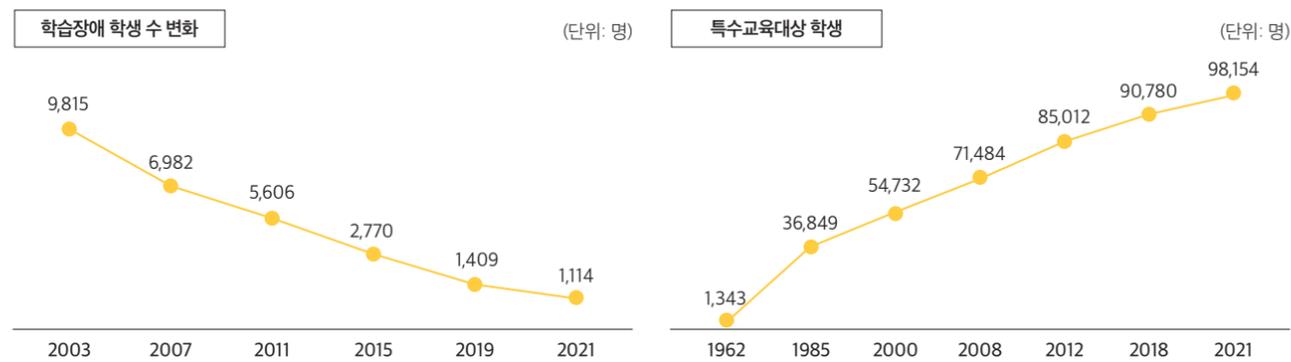
달자 비율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수학은 10% 내외, 여타 과목도 7~8%를 상회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율 자체가 실제 우리나라 학습부진 학생 규모를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이란 매우 낮은 학력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준을 높인다면 학습부진 학생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보통학력에 이르지 못하는 비율은 20~30% 수준이다. 이 집단 안에는 많은 수의 학습장애 학생이나 경계선급 지적 기능 학생, 심지어 경도 지적장애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교육대상자 1.7%가 가리고 있는 것들

특수교육대상자 수나 비율이 적은 것 자체는 그것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였다면 문제가 되기는커녕 환영할 사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판별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1 -학습장애 학생 수 변화 추이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21). 2021 특수교육통계(특수교육대상 학생 도표). * 학습장애 학생 수 변화 도표는 자체 작성.

01 특수교육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

사람들은 양적 규모가 적으면 그 사안의 중요성 또한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 학생의 1.7%와 5%, 10%는 비율로는 3~8% 차이지만 숫자로는 수십만 명의 차이이다.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10만 명일 때와 20~50만 명일 때는 행정적으로나 교육정책, 예산 배정, 교육과정 운영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후자라면 당연히 사람들, 특히 교육계 종사자들의 인식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02 조기진단·개입 못해 학습 어려움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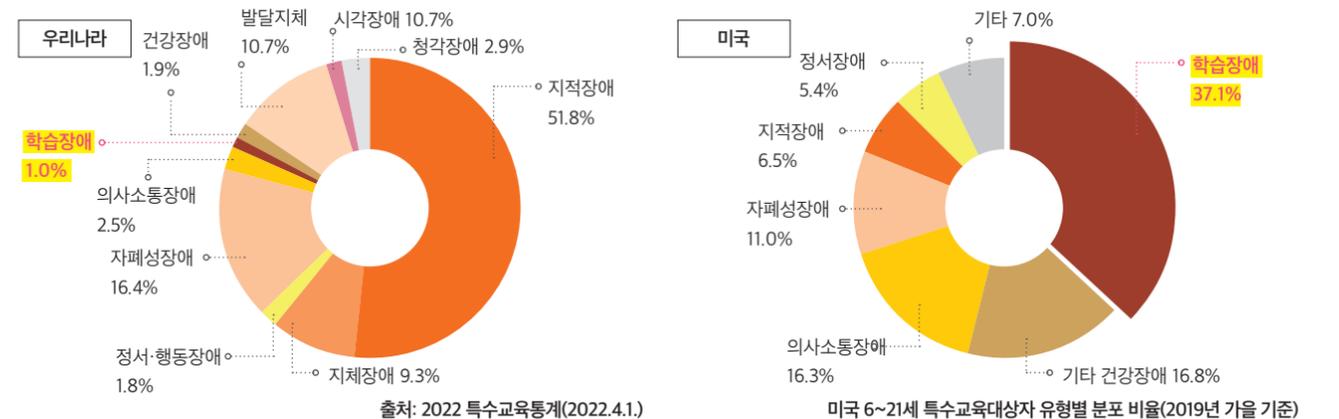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의 핵심 중 하나는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이다. 이는 개입의 효과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재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진단받지 못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는 학생 개인적으로는 공교육 체제하에서 어려움이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례로, 한국학습장애학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약 4.6% 정도가 난독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대부분은 난독증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기개입을 하면 한글 읽기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 학습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03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보에 소극적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많은 수의 교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 규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감소 정책의 원인에는 전반적인 학령기 인구 감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된 학생 수가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할 만큼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특성과 배경, 교육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특수교육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나 지원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장애 학생은 물론 경계선급 지적 기능 학생, 심리·정서·

그림2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학습장애 집단 구성 비교



출처: 2022 특수교육통계(2022.4.1.)

미국 6~21세 특수교육대상자 유형별 분포 비율(2019년 가을 기준)

66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낙인효과를 두려워하여 피할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거나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99

행동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04 학습부진 대책의 왜곡

학습부진으로 판별된 학생들 중에서는 실제로는 난독, 난산과 같은 학습장애처럼 특수교육적 원인 분석과 접근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판별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학교의 학습부진 대책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반적인 학습부진 대책(예컨대 학습동기 향상, 심리정서 상담 지원,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난독, 난산, 난서 등의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보통의 학습부진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기 맞춤형 정밀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 보통의 교과 학력 진단평가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으로는 이들의 지원 요구와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05 맞춤형 교육 문화와 전문성 개발에 방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과소 추정 및 판별은 학교 현장의 이 학생들에 대한 대응 노력 소홀 → 관련 전문성 향상 노력 부족 → 관련 분야 연구와 개발 및 전문성 향상 미흡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졸업 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과목으로는 특수교육개론서 1과목만을 수강한다. 학습, 정서, 행동, 심리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나 실습은 거의 접하지 않고 학교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인수 학급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는 교육방법이나 관련 자료 개발 관련 연구역량이나 전문성이 향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06 낙인효과

많은 학부모는 자녀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고 판별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낙인효과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낙인효과를 두려워하여 피할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거나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개별 맞춤형 교육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 당연히 하는 일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 물론 기본전제는 특수교육대상자 분류와 판별이 아니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낙인효과를 핑계로 조기개입, 조기진단을 미루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제언

특수교육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매우 간단하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진단 기준과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필자가 보기엔 여기에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놓여 있다.

첫째는 학급이든 교과든 담당 교사의 각 장애 특성과 진단 의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기관에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주목해야 할 특징과 진단 의뢰 절차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난독이나 난산, 경도 지적 및 정서·행동장애 등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의심이 들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진단을 의뢰하는지를 적어도 일부 교사들에게라도 명료하게 가르치고 실습시켜야 한다. 이는 특수교육 수강 학점을 늘리라는 주장이 아니라, 관련 업무 처리 절차와 방식을 매뉴얼 형태로 제작하여 이해시키고 실습시키는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장애로 의심되는 학생을 어떻게 진단 의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업무지침과 매뉴얼 및 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 유형 진단과 판별 기준 및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 장애 진단과 판별 기준을 업무 처리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장애 유형, 특히 학습장애 진단과 판별이 제대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셋째,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정공법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정공법이란 왜 장애나 특별한 지원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기에 진단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 전제는 일단 진단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지원을 충실하게 투입하는 것이다. **넷째**,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간 경계를 보다 유연하게 해서 어떤 학생이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면 특수교육적 접근을 제공받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핀란드나 미국처럼 소위 ‘개입-반응 접근(RTI)’을 적용하여 최소한 3단계(정규 수업 내 지원 - 소집단 집중 지원 - 개별 집중 지원) 지원망을 구축하고, 각 단계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교육계 모두 특수교육대상자에 관심을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규모는 지나치게 적게 파악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커서 좋은 일은 물론 없다. 하지만 인간 특성의 분포상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규모가 1.7%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보다 과소 파악된 특수교육대상자 규모는 특수교육계만의 사안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교육 관련 정책이나 문화 전반에 걸쳐 학습자의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려 관련 정책은 물론 연구와 개발의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곧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전체가 특수교육대상자 규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특수·일반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통합교육 협력모델 정다운학교는 첫째 40개교에서 2022년에는 104개교로 늘어났다. 연구학교 및 운영 중점학교로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는 가운데 통합교육 협력모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울산 매곡초등학교와 경기도 세종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한다.

울산 매곡초등학교 '야물딱' 통합교육 프로그램

- 1 1학년 통합교과 협력수업
- 2 점자명함 만들기



정다운학교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모델 학교를 말한다. 2017년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일반 학교에서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력 및 교육권 강화가 그 목적이다. 이에 2018년부터 40개교로 운영되던 정다운학교는 2022년 104개교로 늘어났다. 정다운학교로 선정된 일반학교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델 개발·운영 및 협력교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통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울산 매곡초등학교는 2021년 통합교육 연구학교로 선정되면서 '야물딱'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구안,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 세종고 역시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중점학교'와 '통합체육 거점학교'로 운영, 2022년 통합교육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매곡초교, 사회통합 역량 키우는 '야물딱'

"야야무진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물(MUL)-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딱-딱 좋은 통합교육 활동을 확산하는 것." 삼행시로 풀어본, 울산 매곡초의 '야물딱 통합교육'과 관련한 정의다. 매곡초 '장애이해동아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제작한 영상에서다. 이 영상은 제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했다.

매곡초의 '야물딱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사회통합 역량 신장'과 그 역량의 내면화로 갈무리할 수 있다. 곧,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의 통합학급 협력교수 수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매곡초의 통합교육을 담당해 온 조수운 교사는 "통합학급 수업은 두 교사의 물리적 통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과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야물딱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였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조 교사는 "통합학급에서 협력교수 수업을 운영할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혹시라도 자신 때문이라는 낙인효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부모도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2년 동안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과제였다."라고 돌아봤다. 이의 해소를 위해 매곡초는 통합교육협의체를 결성, 학부모들을 설득해 나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야물딱 창체 교재 <행복합니다>를 발간, 지속적인 장애이해 교육을 시행했다. 조 교사는 또 "통합학급을 처음 맡으면 지도안 설계부터, 수업, 이후 성찰까지 교사들도 부담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였다."라면서 "이번에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의 구성원들도 통합교육과 협력교수에 관한 인식과 역량이 한층 더 향

상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전했다.

특수·일반교사가 함께, '협력교수' 통합교육

매곡초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물(MUL: Make up curriculum, Unify lesson, Learning&Feedback의 약어)'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두 번째인 '협력교수 수정' 단계. 조 교사는 "특수 및 일반교사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된 후에는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요소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주효했다."라는 설명이다. 매곡초의 이 같은 협력교수 유형은 기존의 그림자교수, 스테이션 티칭, 팀 티칭 등 외에도 학생지원 유형이 추가되어 진행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매곡초의 협력교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공개된 바 있다. 수업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각각 나뉘어 전 학년이 참가했다. 수업에서는 협력교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애 유형이 각각 다른 수업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어떻게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 통합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의 특수교사들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매곡초의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건 한 주 동안 운영됐던 야물딱 페스티벌. 저·고학년별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66
통합학급 수업은 두 교사의 물리적 통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교수가 필요하다.
99

특별기획 2_ 특수·일반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3 울산 매곡초 장애 이해 티셔츠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

경기 세종고는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 특수·일반교사가 협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휠체어 레이스

5 보치아 수업

교사는 “연구학교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통합 학습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평소 부정적이었던 행동과 언어 사용에서 수업 이후부터는 어울림, 배려, 협력 등 긍정적인 가치의 언어 사용으로 점차 전환되어 갔다.”라면서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유연해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교사는 또 “통합학습을 위한 특수교사의 정원 확대, 그리고 개별화 교육의 장점을 살리려면 협력 교수 수업을 일반교실로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교육'

경기 세종고의 통합교육은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중점학교 및 통합체육 거점학교'로 운영되었다. 통합교육 연구과제로서 '개개인의 다양성 존중'을 실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육'이 그 목표였다.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휠체어 댄스 프로젝트와 휠체어 언덕 오르기, 휠체어 레이스 및 농구 프

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저희 세종고에서 정다운학교의 정의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죠. 통합교육을 시작하면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는 융합교과 교육을 먼저 시도했어요. 통합교육 정착을 위해서는 거창한 출발선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친숙한 융합교과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동안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담당해 온 성태훈 교사의 설명이다. 국어과의 경우 ‘청출어람 토론대회’ 기획이 그 좋은 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사서교사의 협력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도 이 교육 활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동아리 활동 또한 통합동아리로 운영한다.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어동아리 ‘호룡불’, 밴드 동아리 ‘밴드 라파엘’에서는 수어를 배운다. 이로써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편견을 없애고

장벽을 허무는 경험을,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는 함께 한다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패럴림픽 종목 보치아, 정규 체육교과에 편성

세종고는 통합체육교과 운영 중점학교다.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제장애인올림픽 경기종목인 ‘보치아’를 정규체육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보치아는 동계올림픽 종목 컬링과 경기방식이나 점수산정 방식이 유사한 종목. 성 교사는 “보치아의 정규 수업 채택은 체육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 사례”라고 전했다. 보치아는 미세한 움직임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으로 여학생들로부터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스포츠클럽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다. 학생들의 체험활동 중에서 교육적 효과가 가장 컸던 프로그램이 ‘휠체어 언덕 오르기’다. 성 교사는 “4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힘들게 수행한 이 활동은 휠체어가 이동수단인 지체장애인의 불편함을 체험해 보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성 교사는 또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을 타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운영될 수 있다.”라면서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학습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인식이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 교사는 “세종고의 사례와 같은 교육과정적 통합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모사업, 기타 지원에 관한 결정이 수업계획서, 또는 평가계획서가 제출되기 전인 2월 안에 결정돼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운영 중점학교에는 1명의 특수교사 정원 배치가 절실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세종고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모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인근 여주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체육관을 활용하여 관내 특수학급 체육대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성 교사는 “앞으로 마을 내에 있는 장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주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더욱 질 높은 통합교육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과제”라고 소개했다. ㉠

경남 진주해광학교 박은지 특수교사 “저는 대한민국 순회교사입니다”

2005년 5월 개정·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및 순회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의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호하는 조치다.

특히 이동이나 심한 운동기능 장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순회교육도 다루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및 가정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해온 경남 진주해광학교 박은지 교사로부터 순회교사의 일상, 또 순회교육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박은지 선생님의 하루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순회교사다. 경남 진주해광학교 박은지 교사는 첫 발령지 함양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시작으로 6년째 순회교육을 맡아온 순회교사다. 지난 5년 동안은 주로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서, 이어서 1년간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순회를 맡았다. 이번에 박 교사가 맡은 순회학급은 초등학교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교 1명 등 5명. 대개는 유·초·중등부 등 학교급별로 각각 순회교사가 배정되지만, 이번에는 무학년제 학급으로 편성되었다.

“지난 5년 동안은 주로 초등부 학생들을 지도해 오다가 중고등부는 이번에 처음 맡았어요. 학교급별로 교과과정과 학습지도안에서 차이가 크다 보니 저로서도 수업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만큼 수업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어요.”

장애와 학습 수준에 맞춘 교과과정 설계

박 교사의 순회교육은 주 2회, 2~3차시 수업으로 진행된다. 뇌병변장애와 선천성근무력증 등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수업 참여도를 살피면서 그때그때 학습량을 조정한다. 국어와 수학, 미술, 음악 등 모든 교과를 정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게 목표지만, 교과서대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박 교사의 설명이다.

특히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따라서도 교과 진행에 제약이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등을 운영할 수 없어 박 교사로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한다. 외출이 부자유스러운 학생들에게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에듀에이블’ 사이트 등 디지털 공간의 학습자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재다. 박 교사는 학생의 장애 수준과 학습 정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디지털 박물관 방문 등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체험활동이에요. 3D 증강현실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척 신기해하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요. 학기 초에는 수업에 소극적이던 학생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합니다.”

박 교사가 이번에 만난 초등부 한 아이는 그가 특수교사로서 보람과 감사를 느끼게 해 준 친구다. 중도 중복장애이자 중증장애가 있는 이 아이는 학기 초 박 교사와의 첫 대면

에서 마냥 올기만 했었지만, 박 교사의 성심을 다하는 수업 속에서 친밀도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수업을 즐기는 단계가 되었다.

“코로나로 체험활동의 즐거움 놓친 건 아쉬워요”

순회교육에 나설 때마다 박 교사의 차에는 항상 짐이 가득 실린다. 수업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교구와 학습자료 등 수업 준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올해 처음 맡게 된 중고등부 학생 수업은 박 교사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순회교사로서는 가정에 방문하기까지 이동 거리도 만만치 않다. 이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면 단위 학교에 방문하려면 왕복 한 시간을 훌쩍 넘기곤 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순회교육을 보건실에서 진행하기도 해요. 학교에서도 특수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셈이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방문하는 교사들이 순회교실 개설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순회교사들은 이종고를 겪어야 했다. 박 교사도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업에 나서지 못하던 시기에는 더없이 안타까웠다. 학부모들에게 국립특수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습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순회학급 학생들의 체험활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손수 요리하고, 함께 시식하는 활동 등은 일절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교사는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요리와 같은 체험활동을 특히 즐겨워한다.”라면서 감염 위험성으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때번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다 보니 언어적 자극이 중요한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해야 하는 아이의 경우엔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또 마스크 때문에 여름엔 덥고, 습도 차고요. 저로서는 가정방문을 해야 하니 학생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죠. 꼼꼼한 손 소독과 체열 체크는 물론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어요.”

“순회교육,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 교사는 순회교육을 하면서 느낀, 순회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교사는 학교마다 ‘순회교육 지침’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이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게 적용해야 하는 지도의 내용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

“우선 순회학급당 5명 정원의 학생 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 2회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족될 수가 없거든요. 장애 유형이 다른, 학교급별 5명의 수업 설계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교사로서도 어려움이 따르곤 해요. 수업 준비시간도 늘 부족하고요. 특수교육에 적합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순회학급 정원 수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중증장애 학생과 수업이 이뤄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적 지원 연수 프로그램도 필요하단다. 첫 부임지에서와는 달리, 이번에 중증장애 학생들을 처음 가르치면서 이 영역의 공부도 더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박 교사다.

“재택 순회교육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도 중복장애에 대한 연수와 자료들을 찾아 공부했어요. 앞으로 중증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들도 좀 더 찾아서 챙겨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특수학급 미설치 및 재택 순회교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관한 연구와 노력을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박은지 교사. 첫 재택 순회교육의 임무를 완수했으니, 2022년은 순회교사로서 값진 도전의 해였단다.

“특수교사로서 제가 꾸는 꿈은 늘 소박해요. 순회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 혹은 학교에 방문했을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처럼,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필요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⑤



2

123

박은지 특수교사가 많은 학생은 순회학급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5명이다. 순회교육은 주 2회, 2~3차시 수업으로 진행된다. 정규 수업대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지만, 뇌병변장애와 선천성근무력증 등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은 수업 참여도를 살피면서 그때그때 학습량을 조정한다.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5년마다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8일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이하 ‘제6차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6차 계획은 제5차 계획(2018~2022)의 추진 결과 분석, 17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 교원, 전문직 및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였다.

학령인구는 감소,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587만 9,768명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유치원생 수는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다. 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0만 3,695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진단 기준에 대한 민감도 등으로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특히 높아져 (13.7%↑) 장애 발견 즉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72.8%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통합학급과 분리되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등 실질적 통합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2022년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포괄적 통합교육 정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림 1 - 최근 5년간 학령인구 변화 추이



제6차 계획은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세웠다.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장애(또는 위험)영유아에게 있어서 조기발견과 교육은 2차 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교육·복지·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장애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보육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의 단계적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400학급 이상 확충하며 통합유치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전국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가칭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을 운영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 확산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여 특수학교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급·장애유형별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을 확충한다.

그림 2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현황



아울러,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된 경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를 확대하고,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2022년에 장애이해교육 성과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학교 장애인식지수’를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원의 장애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한다.

한편, 교원의 직무·자격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편성하고, 통합교육 협력 모델인 ‘정다운학교’를 현재 104교에서 200교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 공감문화 정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 운영 등 장애이해교육을 다양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청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장애학생 대상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인 ‘열린배움터’를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 인공지능 활용과 융합교육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AI교육 선도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을 확대한다.

그리고 2022년 6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시각·청각·시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원체계 마련,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등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기반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지원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중심의 전공과 운영을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하여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8교에서 15교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지원부서)를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모델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0개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역단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학습자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교육부는 이번 제6차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년 점검함으로써 기본 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㉞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 교육부 전면 조직개편

글_ 김진홍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교육부는 2023년 1월 1일자로 전면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대규모 개편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그동안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 체계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관의 성격 또한 각종 규제와 세밀한 제도를 통한 통제 중심의 역할에서 수요자 기반의 정책과 지원 중심의 행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의 핵심인 미래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서 변화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인재양성, 교육 분야 국가책임의 강화, 디지털교육 체제 전환, 고등교육 분야 규제 완화 등 수요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역할은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미래 대비, 첨단 분야
국가 핵심인재 양성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 인재정책실 신설

이와 같은 교육부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한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대응하여 첨단 분야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시도교육청,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온 국민이 평생동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재정책실에는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과 산업별·학문 분야별 세부적인 인재양성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술·연구 및 대학원 연구 지원과

초·중등교육 분야,
국가책임 강화

인재선발을 위한 대입제도의 혁신을 담당하는 ‘**인재정책기획관**’이 설치되어 국가 인재양성 체제의 틀을 새롭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인재정책관**’에서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해 온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정책을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통합적 체제 아래 재설계하여 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온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며 직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혁신지원실 →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학교혁신지원실’에서 ‘책임교육정책실’로의 개편을 통하여 학교제도와 교육과정 등 제도와 틀 중심의 초·중등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업 혁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현장에서 정말로 원하는 정책과 기능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책임교육정책실 내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이 설치됩니다. 우선 **책임교육정책관**에서는 교실 수업과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진단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책임교육지원관에서는 수업 혁신의 주체인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 필수적인 인성교육 및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보통합, 초등 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온 국민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차원의 책임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미래사회 대비한 새로운 조직체계 마련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혁신국 마련

고등교육 분야, 초·중등교육 분야 외에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변화로서 교육부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 영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조직체계의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간 교육부 내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설계한 전략 조직입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에서는 디지털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에듀테크 등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교육 체제의 핵심 요소인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규제혁신국'은 대학이 학술·연구 및 교육 활동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인재양성에 보다 힘쓸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들인 재정, 교원, 학사, 법인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제 없는'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들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원 등 교육정책 파트너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의 효과적인 활용과 학생안전·교육시설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과의 밀접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 실현

이번 교육부의 전면 조직개편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 국민적 기대,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개편된 조직체계에서 양질의 교육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



2023 교육부 예산, 역대 최대규모

전년 대비 12조 3,728억 증액된 101조 9,979억 원

글_ 유수민 교육부 예산담당관 사무관

12.24(토)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2023년 교육부 예산은 전년 89조 6,251억 원에서 12조 3,728억 원 증액된 101조 9,979억 원이다. 교육부 예산은 2023년 최초로 1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3년 분야별 교육예산 현황

교육 분야 예산은 크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고등교육 부문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구분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0조 1,819억 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0조 7,011억 원 증액된 75조 7,606억 원이다. 2023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표 1 - 2023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대비 증감 (C-B)	%	전년 대비 증감 (C-A)	
	본예산(A)	제2회 추경(수정)(B)	예산(C)			증감 (C-A)	%
총지출	89,625,111	100,500,110	101,997,888	1,497,778	1.5	12,372,777	13.8
예산	83,814,972	94,685,223	95,993,631	1,308,408	1.4	12,178,659	14.5
기금	5,810,139	5,814,887	6,004,257	189,370	3.3	194,118	3.3
· 교육 분야	83,898,376	94,768,826	96,015,758	1,246,932	1.3	12,117,382	14.4
-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730,056	81,627,598	80,911,994	△715,604	△0.9	10,181,938	1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37	76,044,956	75,760,666	△284,290	△0.4	10,701,129	16.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470,037	△359,009	△9.4	△359,009	△9.4
- 고등교육	11,900,887	11,909,221	13,513,495	1,604,274	13.5	1,612,608	13.6
- 평생·직업교육	1,131,583	1,097,563	1,440,683	343,120	31.3	309,100	27.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9,377,301	9,377,301	-	9,377,301	순증
- 교육일반	135,850	134,444	149,586	15,142	11.3	13,736	10.1
· 사회복지 분야	5,726,735	5,731,284	5,982,130	250,846	4.4	255,395	4.5
- 기초생활보장	122,168	122,168	157,313	35,145	28.8	35,145	28.8
- 공적연금	5,604,567	5,609,116	5,824,817	215,701	3.8	220,250	3.9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원아 수 감소로 전년 대비 3,590억 원 감액된 3조 4,7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1조 6,126억 원 증액된 13조 5,13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3,091억 원 증액된 1조 4,407억 원이다.

2023년의 교육부 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으로 인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리고 12.24(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용된다. 이번 법 제정은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이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들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지자체 간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맺어 고등교육을 혁신에 나가는 등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규모 9.7조 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4조 원이다. 특별회계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국세 교육세 규모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교육세 1.52조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일반회계에서는 추가적으로 0.2조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분야 사업 중 8.02조 원 수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 예산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추가지원 및 기존사업 이관분을 합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총 9.74조 원 규모이다.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분야 전년 대비 2023년 증액 규모는 고등교육 1.6조 원 및 평생교육 0.3조 원 포함하여 총 1.9조 원으로 이 중 정부안 증액은 0.2조 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은 1.7조 원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37조 원이고 고용노동부가 0.37조 원 규모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사업이다.

표 2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세입 9.74조 원	세출 9.74조 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 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 원 ③ 기존 사업 이관 : 8.02조 원 - 교육 분야 7.7조 원, 타분야 0.32조 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 원 - 교육 분야 1.67조 원, 타분야 0.05조 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 원 - 교육 분야 7.7조 원, 타분야 0.32조 원

* (부처별) 교육부 9.37조 원, 고용노동부 0.37조 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투자 방향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크게 네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②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며, ③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④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 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혁신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1.7조 원 교육부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3,924억 원

대학에 대한 규제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23년 정부안 5,758억 원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2,299억 원이 증액되어 2023년 8,057억 원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가 4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023년 정부안 4,020억 원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1,600억 원 증액되어 5,620억 원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가 39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을 일부 완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23년 정부안) 9,778억 원 →(23년 예산) 1조3,702억 원(+3,924억 원)

대학 혁신지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8,057억 원(+2,299억 원)	5,620억 원(+1,600억 원)	25억 원(+25억 원)

2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 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5,314억 원

화하는 등 대학·전문대학의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선(先)재정 지원-후(後)성과 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학에 대한 자율혁신 지원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및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영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25억 원 규모로 신규로 반영하여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특별회계 증액을 통해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특히 국립대 대상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한다. 일원화에 따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23년 정부안 1,500억 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국립대 지원분 1,772억 원이 이관된 3,272억 원에서 특별회계 증액을 통해 1,308억 원이 증액되어 총 4,58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88억 원(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시)에서 124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1,90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66개교, 2022년 기준) 대상으로 평균 28.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을 60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전문대학(69개교, 2022년 기준) 대상 교당 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380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기존 8개 플랫폼에서 9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대학과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3개 플랫폼 12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중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Glocal BK) 4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정부안 529억 원 대비 278억 원의 예산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증액하여 807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아울러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 규모를 확대(34개

교→50개교)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안 273억 원 대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237억 원을 증액하여 51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HIVE) 사업’도 확대(30→50개)하기 위하여 2023년 정부안 409억 원 대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491억 원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9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을 5개 시범 운영한다.

지방대학 집중 육성 (23년 정부안) 7,523억 원 → (23년 예산) 1조 2,837억 원(+5,314억 원)			
지방 대학·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420억 원(+380억 원)	국립대학 육성 4,580억 원(+1,308억 원)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510억 원(+237억 원)
2,500억 원 (+2,500억 원)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120억 원(+120억 원)	4단계 두뇌한국21-Glocal BK 807억 원(+278억 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900억 원(+491억 원)

3 대학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6,603억 원

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2023년 정부안 6,019억 원에서 4,000억 원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증액하여 국립대학 노후시설 중 보수가 시급한 냉·난방기(10년 이상), 노후변압기 및 승강기 등의 개선 및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보수·보강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대학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한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증액하여 정부안 1,180억 원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1,500억 원 증액하여 2,680억 원 규모로 반영한다.

또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연구장학금을 월 30만

대학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23년 정부안) 1조 7,476억 원 → (23년 예산) 2조 4,079억 원(+6,603억 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4단계 두뇌한국21	서울대 출연 5,775억 원(+180억 원)
1조 19억 원 (+4,000억 원)	2,680억 원 (+1,500억 원)	4,428억 원 (+843억 원)	인천대 출연 1,177억 원(+80억 원)

원씩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구장학금 단가가 석사 과정생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박사 과정생은 월 130만 원에서 월 160만 원, 박사 수료생은 월 10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4단계 두뇌한국 21 연구장학금 2023년 정부안 3,585억 원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695억 원 증액하여 4,280억 원 반영한다. 아울러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우수 참여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을 위해 52억 원 및 상위권 연구단 혜택(인센티브)을 위해 95.6억 원 총 147.6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증액하여 지원한다.

4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755억 원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점점 영역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개편·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을 105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증액을 통해 반영하였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가 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및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을 2023년 정부안 612억 원에서 특별회계 증액 400억 원을 반영하여 1,01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을 신설하고 150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통해 증액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지방대학 간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인문사회 교육·연구를 혁신함으로써 인문사회 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공학 분야에서 그간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대학 내 연구소들을 총괄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 사업’ 내 대학중점연구소 거점형을 2023년 정부안 60억 원 규모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100억 원 확대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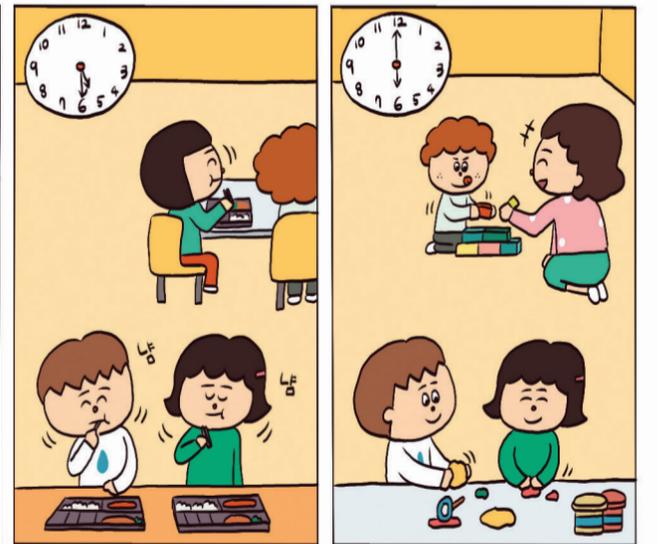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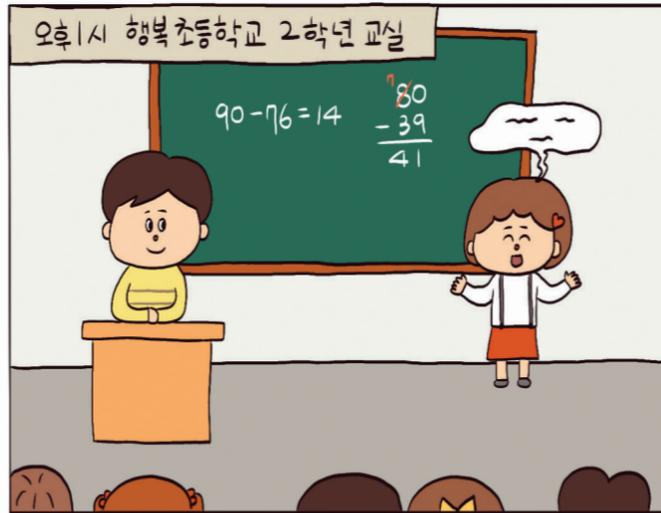
이번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앞으로 교육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대학 스스로 자율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도의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권한·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23년 정부안) 2,306억 원 → (23년 예산) 3,061억 원(+755억 원)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105억 원(+105억 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1,162억 원(+550억 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1,794억 원(+100억 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누리는 초등 돌봄학교

글_ 편집실 그림_ 이정화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7시까지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2022년에는 19시까지 연장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후 연계형돌봄교실을 확충하는 한편,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학생·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DUCATION NEWS

vol.486
JANUARY

NEWS 01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올해 6~7월 전국 초·중·고2 2만 2,702명을 조사한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학생들의 희망직업 1~3위는 운동선수, 의사, 교사, 간호사, 군인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순위로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은 교사를 1위로 꼽았다. 크리에이티브는 초등학생이 꼽은 희망직업 3위에 올랐다. 희망직업은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가 희망직업 순위에서 상승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AI) 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모두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활동으로는 진로체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중·고 관리자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적인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등을 꼽았다.

NEWS 02 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 학·석사 연계 과정도 대학 간 확대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도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해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올해 말까지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을 10%에서 30%로 확대했던 것도 2028년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NEWS 0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 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 명으로,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일정, 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EWS 04 겨울방학 선물, '디지털 새싹 캠프' 개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운영기관으로 대학 59개, 기업 16개 총 75개 기관을 선정했다.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교육사업인 이번 캠프는 교원과 교사연구회, 대학, 민간 등의 역량을 모아,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방문형), 특정 장소에 모여 진행되는 캠프(집합형), 온·오프라인 병행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실습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2월 말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되며,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학생들은 학년, 디지털 역량 수준과 흥미, 원하는 일정·시간·장소에 따라 다양한 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디지털 새싹 캠프 선포식

NEWS 05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교육부는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 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그동안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구 내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1억 원씩을 지원하고, 33개 지구의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용 선임연구위원

복합재난 융합 연구로 ‘스마트’한 창의적 해결 찾는다



홍수, 지진, 화재 등 복합재난 관리를 주로 연구해 온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그는 실질적인 이윤보다는 국민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스마트’하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로, 재난관리 역구개발기술을 적용해 실질적인 기술 투자까지 일궈낸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사진_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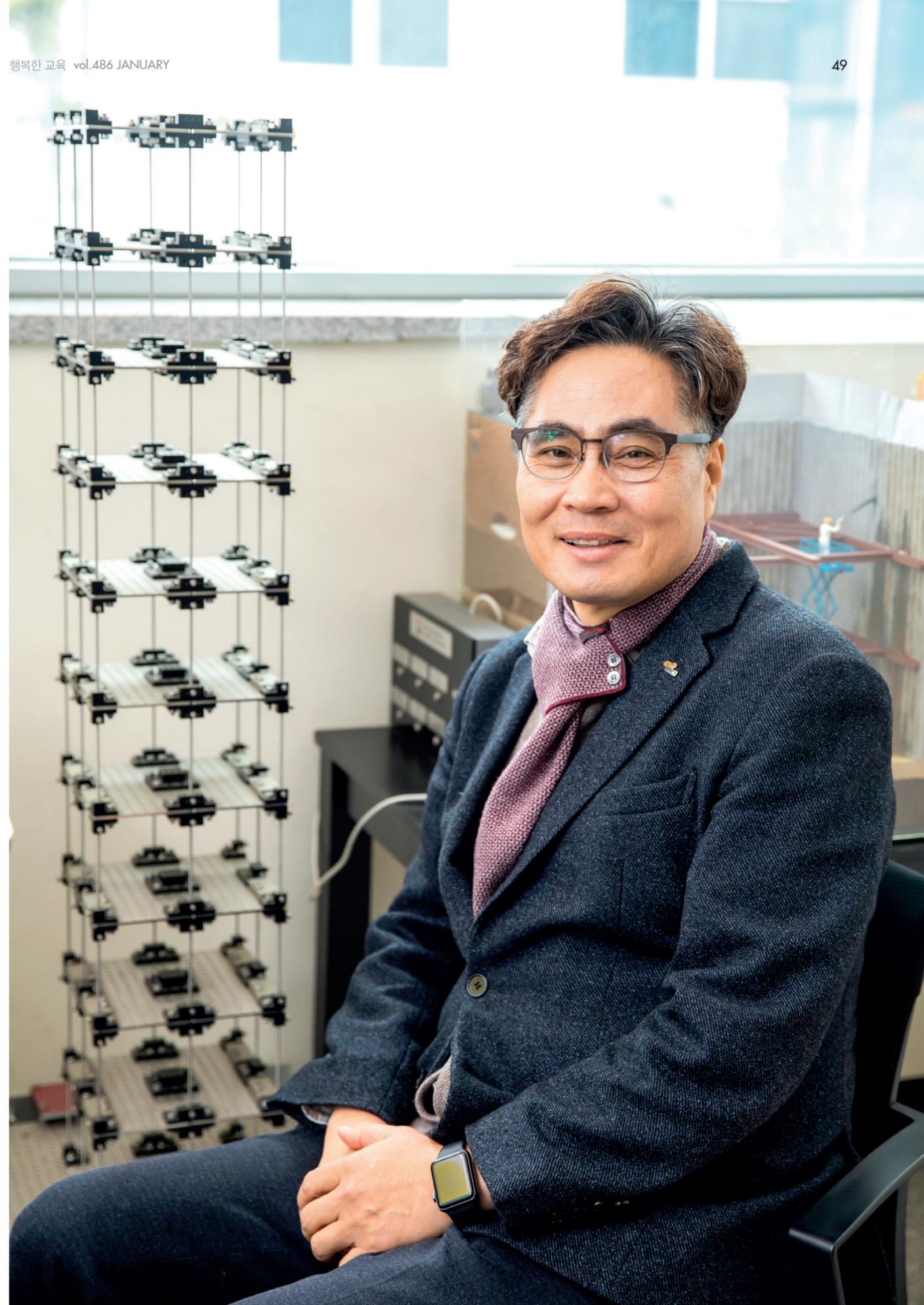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일자리 분야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바로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다. IT기술과 최첨단 장비를 융합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을 기획, 개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 직종은 요즘과 같은 위기 대응 시대에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속해있는 복합재난대응 융합연구원(이하 융합연구원)은 지진과 홍수, 화재의 재난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을 비롯한 세 개 기관의 직원들이 한 사이트에 모여 복합재난관리에 대한 해결점을 창출하는 것이다. 재난 관련 전문 분야는 지금까지 확실한 기반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부가 최첨단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기에 미래 성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5년간의 지반함몰 연구단장을 시작으로 지진을 비롯한 재난관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온 한국기술연구원 백용 선임연구위원과 만났다.

하나,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가?

주로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 재난대응융합연구단이 설립된 이래 3년 넘게 연구를 진행해왔다. 2020년 2월에 연구가 종료된 이후 연구원으로 원대 복귀하게 되어 현재 선임연구위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우리 융합연구단은 지진과 홍수, 화재 이 세 가지 재난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그간 수행해온 활동을 소개한다면?

우리 융합연구단은 출연연구기관이 25개가 있는데 25개의 각각의 연구기관의 장점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의 세 개 기관의 직원들이 일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융합하여 복합재난을 연구하며 성과를 낸 것은



“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연함도 중요하다.

”

융합연구단이 최초일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융합연구단이 개발한 기술을 주상복합건물인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에 적용했다. 보통 5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며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초고층건축물을 보유한 나라다. 불이 나면 사다리차가 고층까지 올라가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팀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 기술을 양도해서 건설기술연구원 제1호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다. 연구원이 기술투자를 해서 사업체까지 가게 된 실질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셋째,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2014년에 송파구 석촌호수 일대에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었다. 제 전공이 지반이다. 싱크홀이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에 의해 지반함몰 연구단이 만들어져서 연구단장으로 5년간 연구를 수행했다. 지반재해에 관해 연구하다가 2016년경에 지진이 발생한 후 지진을 주된 분야로 연구하게 됐다. 다른 분야는 연구원들과 함께 융합연구를 진행했다.

넷째,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2015년부터 재난대응융합연구단이 ‘스마트’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왔다. 지금이야 디지털 트윈, 사이버, IoT, 사물인터넷 같은 용어들이 상용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생소했던 용어였다. 우리 팀이 연구해서 보급하다 보니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지금 이러한 전문용어들이 실용화되어 산업계 분야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연구자로서 선구자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윤보다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기술을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복합재난대응연구단장을 맡아 3년 넘게 연구를 진행해 온 백용 선임연구위원

다섯째,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셨다. 유학 경험이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영향을 준 점이 있다면?

공부했던 지역이 일본 동북지방의 센다이라는 지역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본래 센다이가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기에 유학할 당시에도 지진이 다수 발생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진이 난 경험을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은 재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그때의 경험으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던 것 같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면산사태 분야를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다. 2000년도에 연구원에 입사해서 같은 분야로 연구를 지속하다가 지반붕괴로 옮겼다. 결국 지금까지 공부한 것, 경험한 것들이 점으로 연결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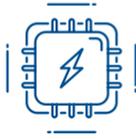
여섯째, 직업인으로서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에 대한 미래 전망은?

사실 재난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재난관리 인식 수준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점차 안전 재난을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에 향후 재난관리 전문가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국민의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희박하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경각심이 미비한 것이 문제다. 앞으로 국가가 재난관리에 관심을 쏟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재난 관련 분야에 관련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준다면 향후 재난 안전 분야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재난·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 강남에 침수 현상이 일어났지만, 당초 재난에 대한 대책 수립은 없었다. 이제는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을 벗어나서 큰 그림을 보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며 이것은 향후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의 소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난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이 있기에 2차, 3차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연함도 중요하다. ㉞

TIP BOX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를 위한 진로 Tip
	<p>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는 최신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재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대비할 방법을 모색하고 전략을 개발한다. 향후 재난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나 재난과 관련하여 정부의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이 있지는 않지만, 방재학과, 소방학과, 재난 관련을 공부하거나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등을 나오면 유리하다.</p>

‘오감’으로 안전을 배워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양한 안전체험 시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안전체험 테마파크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민안전체험관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글_ 편집실 사진 제공_ 365세이프타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365세이프타운

“지진·산불·대테러... 재난·생활 속 안전을 배워요”

365세이프타운은 안전을 주제로 하여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안전체험 테마파크이다.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훈련이 가능한 소방학교와 유아들의 놀이터 키즈랜드 등 다양한 목적과 연령층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곳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특히 주요 테마관인 종합안전체험관은 지진, 산불, 풍수해, 설해, 대테러와 같은 5개 메인 4D 체험관을 포함하여 스마트심폐소생술(CPR)관, 생활안전체험관, 노래방항공기 탈출 체험관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방안전체험관에서는 현직 소방학교 교관이 직접 완강기 탈출, 질은 연기 탈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에 대한 내용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챌린지월드에는 케이블카와 트리트랙과 같은 극기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365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산정상에서 트리트랙 14개 코스(어린이용, 어른용), 킥플라이트(10m 번지점프 체험), 플라잉폭스(100m 짚라인) 등 총 16개 코스로 이루어진 스릴만점 극기체험을 할 수 있다.

- 위치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15 (장성동, 한국안전체험관)
- 운영시간 매주 화~일, 09:00~18:00
- 문의 033-550-3101~4

- 1 종합안전체험관 산불체험관
- 2 챌린지월드 트리트랙
- 3 종합안전체험관 풍수해체험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52개 다양한 체험시설 갖춰, 생애주기별 안전체험 ‘인기’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2022년 4월 새롭게 문을 연 체험관으로, 9개의 체험존과 52가지 체험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국민안전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현직 소방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체험관은 크게 5~9세 아동을 위한 ‘어린이안전동화마을’과 10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체험할 수 있는 ‘복합안전체험장’으로 나뉜다. 어린이안전동화마을에는 가정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야외안전체험, 소방관 직업체험 등을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복합안전체험장에서는 생활 및 산업안전, 교통안전, 사회 기반 및 자연재난 안전, 야외 및 농촌안전 등 4개 체험존에서 다양한 안전사고를 경험하며, 상황별 대처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재난 현장을 4D 입체영상과 특수효과로 체험할 수 있는 4D 영상관,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전문체험장이 갖춰져 있다. ①

- 위치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내삼미동 243-4)
- 체험시간 매주 화~일, 10:00~17:30(온라인 사전예약 필수)
- 체험문의 031-288-1004~5



- 1 응급처치전문체험장
- 2 어린이안전동화마을

공룡 발자국 화석이 알려주는 비밀

경남 고성 상족암군립공원

경남 고성 하이면 덕명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공룡 발자국을 만났다. 약 1억 5천만 년 전, 그러니까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인 중생대 백악기 때 찍힌 발자국이다. 공룡들이 호숫가를 거닐며 발자국을 남겼고, 그 발자국이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다가 드러난 것. 발가락이 또렷하게 찍혔을 정도로 자국이 생생했다. 발자국 크기, 깊이, 간격 등을 요리조리 살피며, 발자국 주인을 상상해봤다.

글·사진_ 김혜영 여행작가

한때는 공룡의 낙원이었던 고성군

만약 지구에 공룡 화석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룡에 관해 잘 알 수 있었을까. 공룡 뼈 화석은 공룡이 죽은 이유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행동을 밝히는 데 도움 된다고 한다. 공룡 발자국을 분석해 육식공룡인지 초식공룡인지, 얼마나 빨리 달리고 걸었는지, 싸울 때 발가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알아낸다. 우리나라에도 공룡 발자국이 매우 많다. 놀랍게도 세계 최대 규모의 중생대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라고 한다.



제전마을 상족암오토캠핑장 앞에서 상족암까지 이어지는 해안 데크 산책로 산책로 밑에 공룡발자국이 찍힌 암반이 펼쳐져 있다.



중생대 백악기 때 한반도가 강과 호수가 발달한 지형이어서 공룡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특히 전남 여수·해남·화순·보성, 경남 고성 등의 남해안 일대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집중돼 있다. 이런 이유로 'KCDC(한국의 백악기 공룡 해안)'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 등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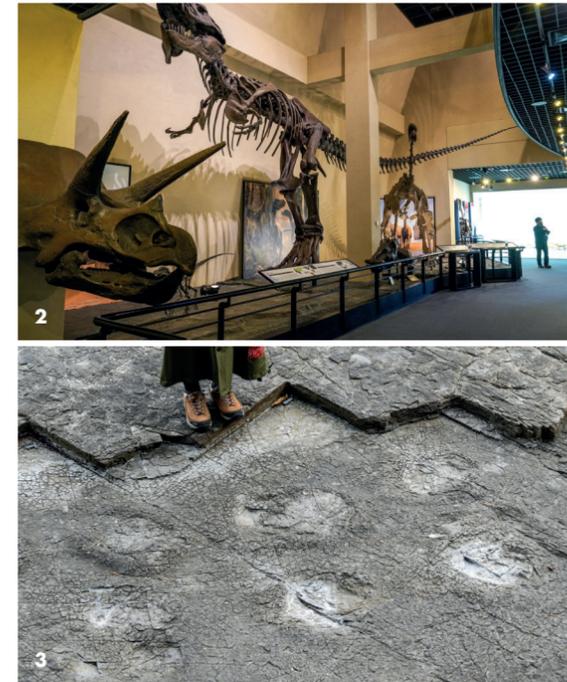
공룡 발자국이 국내 최초로 발견된 경남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에는 약 6km의 해안선에 육식·초식공룡 발자국 약 3,800개가 찍혀 있다. 두 종류의 새발자국 화석도 보인다. 화석 양과 다양성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이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땅속 공룡 발자국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로 가려면 제전마을 상족암오토캠핑장 안내소 앞에서 출발하는 게 편하다. 5분 정도 걸으니, 시루떡을 쌓아 놓은 듯한 퇴적암 해식 절벽 아래 해안 데크 산책로가 나온다. 탐방로 밑으로 넓적한 퇴적암 암반이 펼쳐진다. 이 암반 위에 움푹푹 패인 크고 작은 공룡 발자국이 수없이 찍혀 있다. 마침 썰물 때라 바다에 잠겼던 암반이 흰히 드러났다.

발자국을 자세히 보고 싶어 바닷가로 내려갔다. 공룡이 며칠 전 지나간 것처럼 자국이 선명하다. 공룡 발자국에 발을 얹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공룡 발자국이 작다. 덩치가 작은 공룡이 살았던 모양이다.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 때의 덕명리를 상상해 봤다. 당시 이곳은 호숫가였을 것이다. 네 발로 걷는 목긴 소형 초식공룡, 두 발로 걷는 초식공룡, 육식공룡들이 무리 지어 다닌다. 영화 '쥬라기공원'에도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등이 호수에서 물을 마시고, 호숫가를



1 상족암 해식동굴은 인생사진 포토존으로 소문났다.
 2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인 고성의 자연사를 전시해 놓았다.
 3 제전마을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공룡발자국 보행렬

거닐며 부드러운 흙에 발자국을 남긴다. 발자국이 찍힌 땅 위에 퇴적물이 계속 쌓여 단단한 바위가 된다. 화산이 폭발해 지층이 솟아오르고, 지층이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에 깎여 땅속 공룡 발자국이 드러난다.

데크 산책로를 걸으며 공룡 발자국뿐만 아니라 공란, 연흔, 해식애 등의 다양한 퇴적암 구조도 관찰한다. '공란'은 무질서하게 찍힌 공룡 발자국이다. 퇴적암이 쌓인 후 암석으로 굳어지기 전에 공룡이 계속해서 밟아서 퇴적층이 울퉁불퉁해진 것이다. '연흔'은 흐르는 물이나 파도에 의해 퇴적물이 쌓이면서 지층 표면에 만들어지는 물결 모양 구조이다. 당시 물이 흘렀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퇴적 구조가 공룡의 생활 모습과 환경, 진화 과정을 알려준다.

파도가 만든 걸작 상족암

덕명리 퇴적암 지형 중 독보적인 존재가 '상족암'이다. 바닷가에 병풍처럼 발달한 바위가 파도에 무수히 깎여 해식동굴이 만들어지고, 남은 부분이 돌기둥 형태로 남게 됐다. 이 모습이 밥상 다리를 닮아 '상족(床足)암'이라 불린다. 돌기둥이 매우 크고 굽어서 밥상 다리보다는 코끼리 다리처럼 보인다. 주변 암반에 공룡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너무 흔해 진짜 공룡 발자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밥상 다리를 통과해 해식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바다는 넓고 천장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라 제법 아늑하다. 동굴이 깊지 않고, 입구가 커 빛이 잘 들어온다. 바닥에 찍힌 연흔과 공룡 발자국이 잘 보인다. 파도가 깎아 놓은 웅덩이 모양의 돌개구멍도 여러 개 있다. 해식동굴이 공룡에게 피신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상족암 관람 전에 근처 고성공룡박물관에 들르면 좋다. 5개 전시관에 고성군 전역에 산재한 공룡 발자국 분포도와 발자국의 생성 과정, 실물 크기의 공룡 골격 화석과 진품 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공룡 테마 체험프로그램도 인기다. 티라노 체험장에서 공룡 비누, 공룡 열쇠고리 크로스백, 텀블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고성 상족암군립공원

주소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5길 42-23

문의 055-670-4461

입장 시간 연중무휴

Tip 상족암 해식동굴은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낙석 위험 때문에 출입 통제될 때도 있다. 물때 확인: 바다타임 www.badatime.com



이제 학교는 경험의 공간, 온라인 국제교류로 너의 날개를 펼쳐봐!

글·사진_ 김성희 인천공항공고등학교 교사
(2021-2022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활동 리더)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외국 학생과 함께 주어진 과제를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며 국제무대로 나아가갈
자신감과 매너를 기르게 된다.
더불어 '나도 영어로 외국인 친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흔치 않은 경험은
학생들의 삶에 자신감을 심어 주게 된다. ”



2022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활동(인천공항공고등학교)

“선생님! 저 지금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인권 회의 중이에요. Emerald가 PPT 내용을 조금 더 준비 했는데 발표 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오늘도 카톡방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세계의 문제와 미래 사회의 전망을 토론하는 수업이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팀별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의 한 교실에서 토론 수업을 준비하듯, 온라인에서 외국 학생과 팀별로 토의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다. 처음에는 영어 실력 때문에 주눅거리던 학생들이었지만 수업 상황이 닥치자 손짓, 발짓, 파파고 등을 동원하여 열심히 토의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내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수업 방식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었다.

학교는 경험을 제공하는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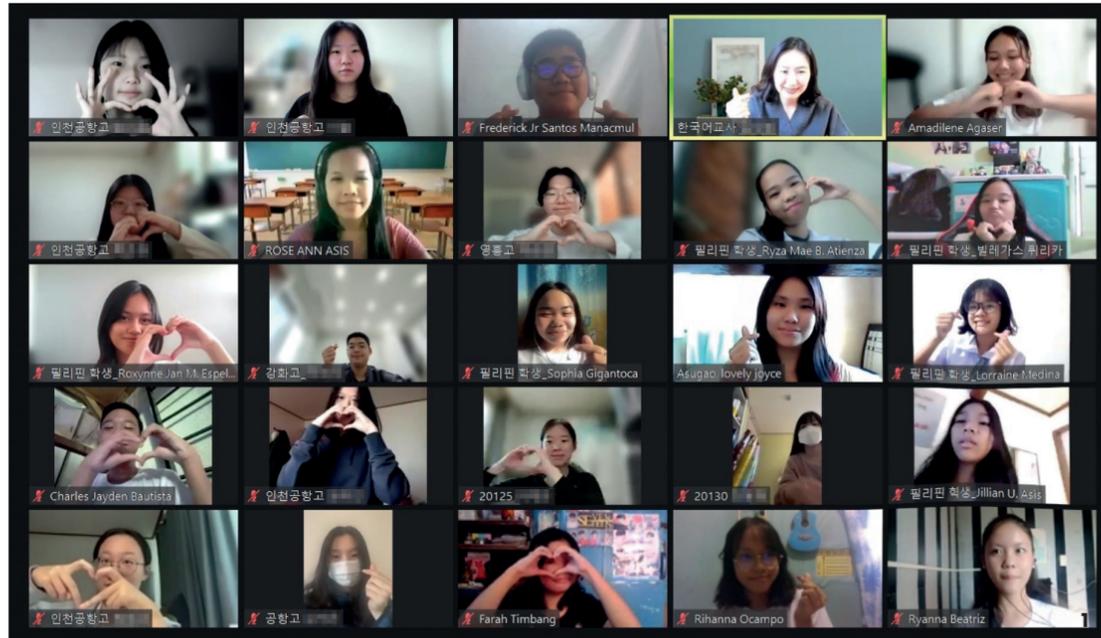
학교란 무엇일까? 짧지 않은 교직생활 동안 세상은 점점 넓어지고 온라인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빠

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한다. 오래전 교직에 첫발을 내디딜 때 보았던 예쁜 학생들의 눈망울에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자신의 개성으로 휘젓고 다니고 싶다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을 매번 보게 된다. 교사로서 이제 학교는 학문을 전하는 상아탑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놀이터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식을 접하고 배울 공간이 너무나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식 경쟁에서 아이들을 이끄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고민이 들찰나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 공문이 눈에 띄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다.

교실 안으로 들어온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국제교류'란 온라인 공간에서 양국 학생들의 문화와 학문을 교류하고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둔다. 유엔에서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국제화 감각과 상호문화이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모두가 공감하지만, 막상 교육 현장에 적용해 나가려면 여러 난제가 따른다. 특히 입시를 앞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활동으로 낙인찍혀 외면당할 수도 있다. 처음 이 교류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도 바로 이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자연스럽게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나는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1 한국-필리핀 굿모닝 코리아 줌(Zoom) 수업 화면

01 우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온라인 국제교류 활동을 기획했다. 학생들의 요구(Needs)를 분석하고 학생들이 선도(Lead)하는 활동을 만들었다. 인문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외 학생과 사회문제를 논하고 싶어 했으며 자연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과 함께 생태 탐구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 이에 인문계열 전공 희망 학생들을 위해 미래사회를 위한 SDGs 사회문제 토론 수업을 기획했다. 한국 학생과 말레이시아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인권문제, 이주민 문제, 환경문제 등 총 4개의 주제에 대해 온라인 카카오톡, 줌(Zoom) 회의 등에서 토론한 후 발표하는 수업이다. 주제별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이러한 토론 수업은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익숙한 토의 발표 형태이나 언어가 영어라는 점, 외국 친구와 한 팀이 된다는 점이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한편 자연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태 탐구 수업 ‘에코바이오 프로젝트(Eco Bio Project)’를 기획했다. 양국 교사들이 함께 모여 프로젝트 방법을 논의한 후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 ‘주제분석-현장 조사-토론-발표’의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이 수업은 방과 후 활동이 아닌 동아리 수업과 연계하여 부담을 줄여 진행했다. 약 2달간의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현장 체험, 갯벌 탐사, 생물채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후 학생 팀별 토론 수업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교사가 수업 기회를 제공할 뿐 학생들이 수업 구성, 토론 활동, 발표 분석 등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 나간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02 온라인 국제교류의 소통 방법으로 카카오톡, 패들렛, 유튜브, 메타버스, 각종 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의 협력 활동을 이끌고 영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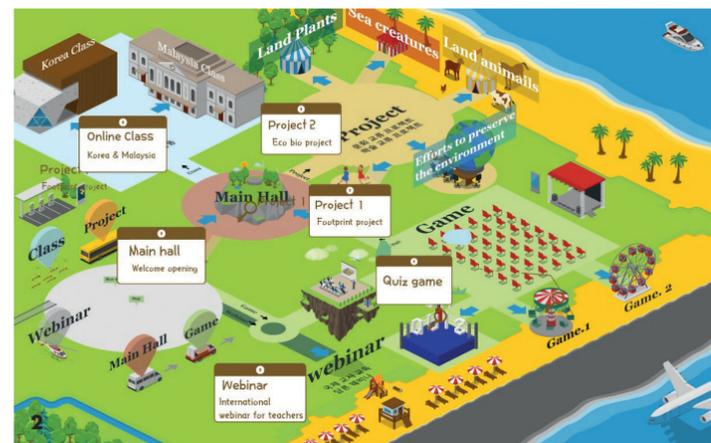
소통하는 자신감과 국제 매너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협력이 주가 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 학기 동안 함께 한 프로젝트를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학생 대부분은 대학을 진학한 후에야 외국인 학생들과의 협력 수업 기회를 얻곤 한다. 하지만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이 가능한 현시점에서는 10대들도 충분히 외국 학생들과 협력 프로젝트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다. 언어 소통의 장벽은 온라인 앱이 도와줄 수 있고, 소통 방식의 장벽은 시차만 피한다면 온라인 회의가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외국 학생과 함께 주어진 과제를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며 국제무대로 나아가갈 자신감과 매너를 기르게 된다. 더불어 ‘나도 영어로 외국인 친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흔치 않은 경험은 학생들의 삶에 자신감을 심어 주게 된다.

03 양국 교사들과 학생들이 우정을 쌓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배움의 공간이 되는 수업을 설계했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약 3개월간 ‘한국-필리핀 굿모닝 코리안’이라는 언어교류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오전 진행했다. 한국 학생들과 필리핀 학생들은 서로 지난 한 주 동안 지낸 일상을 이야기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멘토와 멘티 관계 그 이상의 우정을 쌓아 나갔다. 나 또한 동료 선생님, 해외 선생님들과 온라인에서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의 우수한 수업 방식과 세심한 학생 관리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수업 방식을 나누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학습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 온라인 국제교류의 방향에 대해 논하는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의 웨비나(웹세미나)를 수차례 열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할수록 서로에 대한 우정과 신뢰가 쌓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로서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온라인 국제교류를 마친 후 몇몇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힐 때 나는 이들의 삶에 온라인 국제교류라는 작은 경험이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를 경험했다.

온라인 국제교류의 용기, 도전, 희망!

한 시대 패러다임의 전환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도전으로 인식체계가 급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 온라인 국제교류는 종전의 오프라인 국제교류와는 또 다른 새로운 교육의 도전이라 여긴다. 교사로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용기를 갖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자세가 미래 교육의 희망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라는 수업’인 온라인 국제교류에 함께 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욱더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



2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한 학생들의 협력 활동(전시회)

혼자보기 아까워서



Q 권숙현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사



애들아, 고맙다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웠던 순간을 추억하기 위해 꺼내 봅니다. 위 장면은 학생자치회 행사 중 하나인 먼데이콘서트 때의 공연 모습입니다(7.18). 교사와 학생이 함께 즐거운 무대를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공연하자고 제안했을 때, 무슨 곡인지도 모른 채 선뜻 참여한 민재, 지훈이, 종욱이 또 찬서, 강훈이, 경민이, 재원이, 서영이, 성민이, 성하이, 시후, 지원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Q 김민중 명예기자



무궁무진한, 아이들의 창의력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창의수학교실에서 패턴블럭으로 무늬 만들기를 하는 학생들.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도형을 이용해 나만의 무늬를 만들고 무늬에 이름을 붙여 설명도 하는 활동입니다. 평면도형을 이용해 이렇게 아름답고 역동적인 무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역시 아이들의 창의력은 무궁무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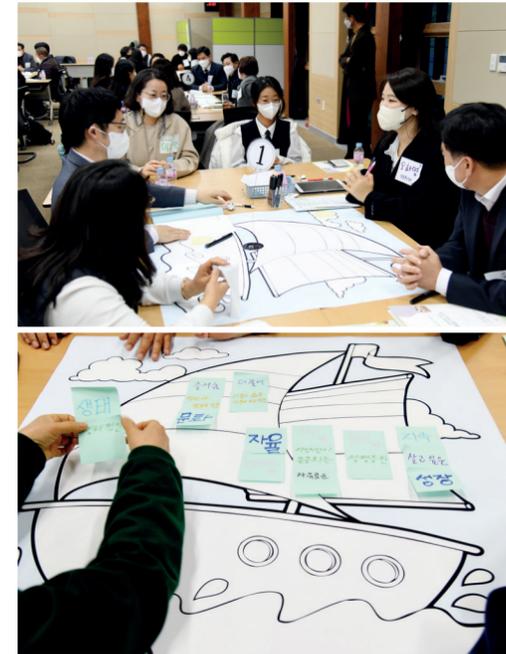
Q 김민환 명예기자



탐동 한국 인터넷드림단 출발!

충남 당진시 탐동초등학교(교장 오현숙)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를 이끄는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2 탐동 한국 인터넷드림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5차시 동안 인터넷드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아이들은 올바른 정보 이용에 대한 습관을 점검해 보는 한편,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짜 뉴스를 구별해 보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Q 문승욱 명예기자



군민이 함께하는 교육비전 대토론

장흥교육자치비전 대토론회가 지난 12월 9일 장흥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참 삶을 가꾸는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수, 군의회 의원들과 교육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 지역민 70여 명이 함께 모여 장흥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누구보다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더욱 뿌듯했습니다.

Q 김인순 명예기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두륜중학교 청바지 요리 동아리반 아이들이 전국 요리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가한 다른 팀보다 전문적이지도 오래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기도와 격려를 한 몸에 받고 출전하였기에 기쁨은 더욱 컸지요. 대회를 준비했던 아이들은 힘든 점보다 배운 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고단했던 3개월간의 요리 활동에서 아이들이 담담하게 의미를 찾는 것이 제게는 큰 배움입니다. 애들아,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배웠구나!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이름 / 소속 / 연락처를 기재해 보내주세요.)

